

전남대·조선대병원 전공의, 개별사직...단체행동 '초읽기'

정부 엄정 대응 기조에 개별사직 행렬 동참 방향 '가닥' '빅5' 전공의 행동 예고 20일 전후 사직·결근 잇따를 듯 지역 의과대 동맹휴학도 가시화...의협 "법률보호 지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광주·전남 핵심 의료기관인 전남대·조선대병원의 전공의들도 개별 사직·결근 등 단체 행동에 동참할 것으로 점쳐진다.

1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행동으로서 사직서 제출 여부는 각자 선택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사법·행정 제재를 예고한 만큼 집단사직 등 가시적인 대정부 투쟁 대신 '개인적 이유'로 의료 일선을 떠나 각기 의사 표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결근하는 형태로도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전공의들 사이에서 나왔다. 아직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없다. 다만 수도권 내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20일 오전 전후로 개별 사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 다른 지역 내 대학병원인 조선대병원 역

시 각자 사직 행렬에 동참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앞서 지난 15일 이미 전공의 7명이 '개인 신상'을 들어 사직서를 냈다. 다만 병원 측은 사직서 양식 문제를 들어 반려했다.

광주·전남권 거점 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에는 현재 전공의 320명, 조선대병원에는 142명이 근무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인 두 대학병원 내 핵심 진료 인력인 전공의 개별 사직이 현실화될 경우 일선 의료 현안이 우려된다.

전공의 사직에 맞춰 전남대·조선대 의과대학 학생들 역시 동맹휴학으로 정부의 정원 확대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남대 의대생들은 94% 넘게 동맹휴학에 찬성, 사실상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고 조선대의 경우도 내부 공론화가 한창이다.

정부안에 반대하며 꾸러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전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사직, 결근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한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동네 병의원 단체행동(파업) 여부도 협회원인 의사 8만여명에게 전자 투표로 물어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전날 의협 비대위 참석 직후 양동호 광주시

의사회 대의원 의장은 "미래세대 의료를 짊어질 전공의와 의대생들까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적극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의사협회 차원에서도 법률적 보호 지원을 아끼지 않

기로 했다"며 "정부의 대응 추이를 지켜보며 의료계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방안을 두루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혁민기자



'봄이 오나 봄' 전남대 캠퍼스 매화 활짝

봄기운이 들고 초목이 싹트는 우수(雨水)를 하루 앞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에 심어진 한 매화나무에 앞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연인이 활짝 핀 매화꽃 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전남 오늘까지 강풍 동반 최고 100mm 비

광주·전남에 19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8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남해안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19일까지 30~80mm가 내리겠다. 전남 동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등은 지리적 특성으로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 특히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 전남 동부 남해안

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퍼붓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매우 미끄러워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돌풍과 천둥·번개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약해져 도로나 공사 현장 지반 침하, 토사 유출·산사태, 낙석, 주택가 주변 축대나 옹벽 붕괴 등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김수권기자

광주 전통시장 비가림막 지붕 92% 가연성 재질

광주 14곳 중 13곳 PC·PMMA 소재 "화재 키우는 요인...맞춤형 시설개선"

광주 지역 전통시장에 설치된 비가림막 지붕(아케이드) 92%가 화재 취약 재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아케이드가 설치된 전통시장은 24곳 중 14곳이다. 이 중 13개 시장(92%)내 아케이드는 화재에 취약한 폴리카보네이트(PC)·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소재로 구성됐다.

호남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내 아케이드는 PC·PMMA소재다. 북구 말바우시장

도 아케이드가 설치된 4개 구간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PC소재다.

전남 지역도 전통시장 115곳 중 63곳에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지만 가연·불연성 소재에 대한 현황은 없는 실정이다.

아치형 비가림막 시설인 아케이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설치되고 있다.

아케이드·고속도로 방음벽에 사용되고 있는 PC·PMMA소재는 시공·교체가 용이하지만 열가소성 재질로 화재에는 취약하다.

지난해 3월 5일 발생한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의 화재 원인 중 하나로 PC재질의 아케이드가 지목됐다. 사상자 55명이 발생한 지난

20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도 불길기 PMMA 소재인 방음터널 벽·천장으로 옮겨 붙어 급속도로 확산했다.

화재 위험성을 인지한 정부는 전통시장법 제20조에 '비가림막 시설 설치·개량·보수시 난연성 사용' 조항을 신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선다.

다만 적용 대상이 앞으로 비가림막 시설을 설치할 시장에만 한정되면서 기존 시장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대화 사업이 오랜 기간 추진됐는데 앞으로 설치할 시장만 새 기준을 적용한다면 기존 시장은 화재 사각지대가 된다. 시장 별 화재 취약 시설을 파악해 맞춤형 개선 사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건강한 밥상의 시작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